

[인제대] 21세기형 융·복합적 자질 갖춘 '양손잡이 인재' 육성

입력 : 2017-07-27 [05:33:55] 수정 : 2017-07-31 [01:22:54] 게재 : 2017-07-30 [16:49:10]



인제대는 이공계 전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 이른바 '양손잡이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인제대 제공

인제대는 양손잡이 인재를 지향한다. 이공계와 인문학을 융합한 인재를 말한다. 교육 시스템도 전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 방점을 둔다. 특성화 분야인 의생명 헬스케어와 미래에너지, 디자인엔지니어링은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지식·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취업 연계 사회 수요 걸맞은 교육
북카페형 토론 공간 등 환경 개선
차별화 프로그램 공학 교육 혁신

■ 융·복합 실무 인재 육성

인제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에 그 뿌리를 두는 학교다. 올해로 백병원 창립 85주년, 개교 38주년을 맞았다. 인제대 차인준 총장은 "우리 대학 건학이념은 '인덕제세(仁德濟世)'다. 이 철학의 21세기 형태가 인성을 갖춘 융·복합적 현장 실무 전문인력"이라고 소개한다.

인제대는 전통적으로 취업에 강한 대학이다. 2017년 대학알리미 발표를 보면 인제대 취업률은 65.8%다. 입학부터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단해 '학생 생애주기 취업로드맵'을 운영한 덕분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융·복합적 실무인재 양성이 거둔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제대는 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K-Move스쿨사업, 국가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 직무체험프로그램사업 등 여러 취업 지원 국책사업을 수주했다. 총 2410억 원대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쓰인다.

지난해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에 선정됐다. 대형 유형에 뽑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8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예정. 학교법인 인제학원 재단도 연 32억 원씩 총 96억 원을 인제대에 전폭적으로 투자한다.

인제대는 또한 융·복합적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의생명 헬스케어 창의전문 인력양성과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도 주요 전략으로 잡고 있다.

■인문학 소양 프로그램

인제대는 인문학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문화콘텐츠융합전공에서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전공 학생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 인문학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실과 실험실 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책, 걸상, 사물함, 냉·난방기류를 교체했고 첨단 실험 기자재를 확충했다. 학습 환경이 학생 역량 계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방형 학습·토론 공간인 'Co-work Cafe'와 'Dream Lounge', 북카페형 토론 공간인 '인문학 카페'도 올해 개관했다. 오는 10월 완공되는 'PRIME 의생명공학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뿐만 아니다. 인제대는 올해 교육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에 선정돼 2021년까지 5년간 162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발판이다.

■공학 교육 차별화

인제대는 공학 교육 혁신을 위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교과목 이수체계 구축이다. 산업체에서 요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감성형 인재 자질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공학 교육 국제 협력회의체인 'CDIO initiative'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가입했다. CDIO initiative는 미국 MIT와 스탠퍼드대 등 전 세계 공학 교육을 선도하는 140여 개 대학이 가입된 단체다.

인제대 PRIME사업의 교육혁신 목표가 CDIO 철학과 다르지 않고 그간의 인제대 노력이 CDIO 회원 대학으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아 올해 국제회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CDIO는 1997년 MIT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상, 설계, 구현, 운영의 4가지 단계에 따른 학생의 현장실무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PRIME 신설학과 주목

PRIME 신설 학과가 주목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았다. PRIME 신설학과로는 BNIT 단과 대학 내 생명과학 기본 교육과정과 현장 실무 교육과정을 융합한 '바이오테크놀로지학부'와 소프트웨어·IT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헬스케어IT학과'가 대표적이다.

공과대학에는 제품 디자인과 공학 설계 능력까지 두루 갖춘 공학기반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디자인 엔지니어링학과'와 영상디지털콘텐츠·비주얼 인포메이션디자인·모션미디어 3개 트랙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학부'가 있다. 이밖에 실내건축학과와 미래에너지공학과도 유망 학과다. 송지연 기자 edu@busan.com